▪ 교회소식 ▪

1. **구역회** : 구역회가 오늘 오후 1:30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구역회 대상자는 목회자, 장로, 권사, 속장입니다. 참석이 어려운 분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세요.
2. **회계교육** : 각 부서, 선교회의 회계 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1:3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3. **모집** : 교회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세요.
4. **새 책** : 김기석 목사의 새 책「인생은 살만한가」가 나왔습니다. 예배 후 교회 앞마당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5. **교회생활안내** :
   교회에 오실 때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차를 가지고 오실 때는 청파마을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주차권)
   예배에 늦지 않게 오시고, 앉을 때는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 주세요.
   회중은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송영 이후에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때 드실 만큼만 받아 가시고 잔반은 남기지 않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사무실에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 설교 본문	고전 8:7~13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하현철	장병준

1월				
	1부 영접위원	권미정	헌금위원	박숙미
	2부 영접위원	장원호 조문규 박기영 진정숙 주은경 김현주		
	2부 헌금위원	곽권희 이형숙		

오늘 식당 봉사	안홍숙 이증자 이수정 노성희 정현주 최재욱 안종일 홍순구		
다음주식당봉사	이소애 이소혜 박유경 김지현 김해선 남인자 강세기 김성우		
오늘설거지봉사	2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3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3남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이국노

110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현 후 3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38. 예수 우리 왕이여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 14. 주 우리 하나님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기를 가득 채운 미세먼지 때문에 힘겨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도 덩달아 어두워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맑게 되돌리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해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오염된 환경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게 하시고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믿는 이들이 앞장서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욕망을 자극하는 신화에 이끌리는 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작은 노력으로 큰 이득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이를 깨우쳐 주십시오. 이 사회가 갑작스러운 성공보다 건강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눅1:78b,79 ····· 인도자

▲ 교 독 문 ····· 74. 마태복음 5장 ····· 다 함께

▲ 영 광 송 ·····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박홍재 장로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292. 주 없이 살 수 없네 ····· 다 함께

▲ 성경봉독 ····· 엡 4:1-6 ····· I. 인도자
II. 김윤정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 마중물 찬양대
II. 천국의 축복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곽정자 구명자 권혁순 박혜경 김금순 김기석 김희우 김남종
오복순 김명하 오형일 김병대 김시영 김애순 김영순 김예준 김와니 권윤경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박상호 김일랑 이은옥 김재환 김진선
김정규 이종옥 김정길 최숙화 김정민 이혜령 김준호 곽혜자 김지연 김필순
김해선 김향자 김훈동 유경순 김희진 박홍재 노진래 최형경 문병욱 문홍일
박숙미 박순섭 권미숙 박영희 박옥순 박준희 이기분 방문성 박혜경 박창운
허정윤 배삼순 백묘현 변재민 이소혜 서해나 설규범 송남필 송정근 이소선
송태조 신현일 심상숙 안미순 안성호 안현숙 오미숙 오진훈 노순옥 오현우
우경환 유경주 유수진 유지은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수자 이순용
김신실 이용석 이우상 이계월 이유선 이응석 이은경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재삼 전정현 이재은 이정은 이주경 안상숙 이주영 오재영 이주은 류건형
이준림 이지웅 이지하 이호원 임 영 정경례 장병준 박소현 장의림 정두리
정영례 정원석 김현영 정종삼 정현숙 조병무 송양진 조성일 조순덕 조영순
조항범 오현정 최미경 최미자 최 숙 최영민 이상미 최옥자 최윤화 최윤희
최종원 최 현 최희영 하현철 최성애 한봉섭 이명희 한상수 남해린 한선희
한성란 박창복 한완식 임정자 허명선 허신열 허호범 박성실 홍순구 안홍숙
홍순복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감사헌금

김성수 김영주 윤승헌 김인석 이선화 김창숙 박기태 박창복 한성란 오민용
윤석영 이고임 이상도 이헌민 임은영 임종수 임채진 이영희 정구봉 최형서
최혜정 무명6 박창운 허정윤(귀한 손주를 주셔서) 유성애(어머니 수술 무사히 마침) 이미혜 문홍일(아버지 수술 무사히 마침)

생일감사헌금 박재영 이미혜

녹색꿈헌금 김반야 김영호 박영림 이고임 장현희 정효진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마음으로 읽는 글** ■

겁난다

유안진

토막 난 낙지다리가 접시에 속필로 쓴다
숨가쁜 호소(　　) 같다

장어가 진창에다 온몸으로 휘갈겨 쓴다
성난 구호(　　) 같다

뒤쫓는 전갈에게도 도마뱀꼬리가 얼른 흘려 쓴다
다급한 쪽지글 같다

지렁이도 배밀이로 한자 한자씩 써 나간다
비장한 유서(　　) 같다

민달팽이도 목숨 걸고 조심조심 새겨 쓴다
공들이는 상소(　　) 같다

쓴다는 것은
저토록 무모한 육필(　　)이란 말이지
몸부림쳐 혼신을 다 바치는 거란 말이지

말　씀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는 것**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475. 인류는 하나 되게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작은 자아를 넘어서 큰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뛰어넘어 '우리'를 지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구역회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너의 고통의 가장자리를 지키며

이상하게도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잠깐 찾아왔던 어떤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당시의 나는 그 때 누가 곁에 있고 누가 없는지도 잘 알 수 없을 정도였는데도 말이다. …

어떤 사람은 내 기운을 북돋을 양으로 이런 말을 했다.

"날씨가 아주 좋네요. 밖에 나가서 맘껏 햇빛을 쬐며 아름다운 꽃이라도 보는 게 어때요? 분명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런 조언은 나를 더 깊은 우울증으로 밀어 넣었다. …

"하지만 당신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파커. 가르치는 일도, 글 쓰는 일도 아주 잘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구요. 당신이 했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분명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그 충고 역시 나를 더 깊은 우울에 빠지게 했다. '좋은' 사람으로 비치는 외적인 내 모습과 당시 내가 믿고 있던 나의 '나쁜' 모습 사이의 엄청난 격차만 절감할 뿐이었다. …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당신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그들이 주려는 어떤 위안이나 위로도 나는 그냥 귓전으로 흘려들었다.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신비를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는 법이다. …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의 고통을 '고치겠다'고 덤벼들지 않는 일, 그냥 그 사람의 신비와 고통의 가장자리에서 공손하게 가만히 서 있는 일이다. 그렇게 서 있다 보면 자신이 쓸모없고 무력하다는 느낌이 든다. 바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위안자들처럼 무의식적으로 앞에 있는 저 불쌍한 사람과 자신은 다르다는 걸 재차 확인하려고 든다. …

감사하게도,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내 곁에 함께 있어 줄 용기를 가진 가족과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빌이라는 친구였다. 그는 내게 허락을 얻어 매일 오후 우리 집에 들러서 나를 의자에 앉히고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신발과 양말을 벗긴 다음 30분 동안 발을 마사지해 주었다. 그는 아직 감각이 살아 있는 내 신체 중의 한 부분, 그래서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낸 것이었다.

빌은 거의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쩌다 말을 할 때도 충고 따위는 절대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느끼는 내 상태를 말해 주었다. "오늘 네가 얼마나 힘든지 느껴진다"거나, "네가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곤 했다. 내가 늘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말은 정말로 도움이 됐다.

누군가 나를 지켜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소멸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이에게는 생명을 주는 일이다. 그 친구의 행동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신 성경의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말하기를 사랑은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방어하다가 서로를 접하고 인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빌이 내게 준 사랑이 이런 것이었다. 그는 결코 나의 내면을 거짓 위로나 충고로 침범하지 않았다. 그는 내면의 경계선에 가만히 서서 나와 내 여행을, 그리고 모든 상황을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용기를 존중해 주었다.

릴케는 영혼의 고통을 회피하지도 침범하지도 않는 사랑을 그리고 있다. 고통 받는 사람을 향한 신의 사랑은 우리를 '고치는'게 아니라 함께 고통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다른 삶의 고독의 가장자리에서 존경과 믿음을 갖고 서 있음으로써 우리는 신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다.

- 파커 파머,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한문화) 중에서